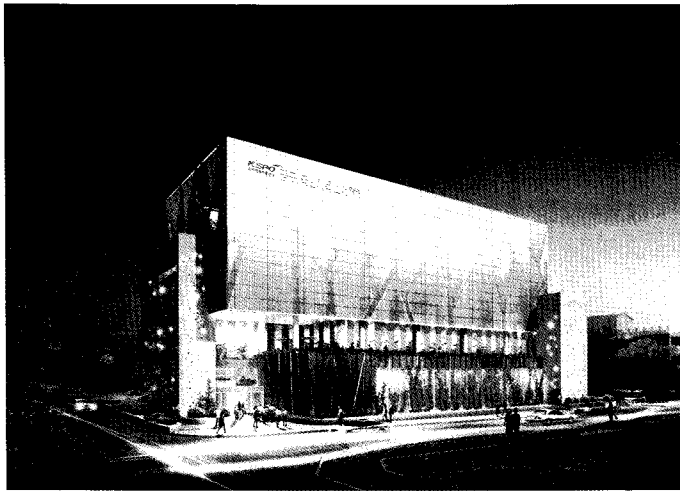


중구국민체육센터 “첫 삽 떴다”

선화동에 지하층 지상4층 규모로 최신 스포츠시설 도입, 내년 상반기 완공



대전시 중구(구청장 이은권)가 그동안 중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최종 사업시행자가 결정됨에 따라 10월 6일 기공식을 가졌다.

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선화동 186-14번지 일대 2034.6㎡ 부지에 지하 1층, 지상 4층 연면적 4284.19㎡ 규모로 건립되며,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.

층별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수영장(6레인)과 사우나실, 2층에 사무실과 강의실, 3층에는 체력단련실, 헬스장, 취미교실(3개), 4층에는 농구, 배드민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서며, 옥상에는 하늘정원과 야외풀장, 체육관을 내려다보며 관람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조성된다.

또한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모든 구성요소를 무장애화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주출입구 단차제거, 경사 입수로, 높이조절 샤워기 등 장애인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.

더불어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, 태양열 집열판, 초절전 형광램프 등 에너지절약 건물로 조성된다.

이 사업은 원도심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.

구는 지난 2006년 12월 선화동 186-15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건립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용모신청을 한 후, 기금확보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.

이은권 중구청장은 “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”며 “주민들이 즐겨찾는 건강관리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